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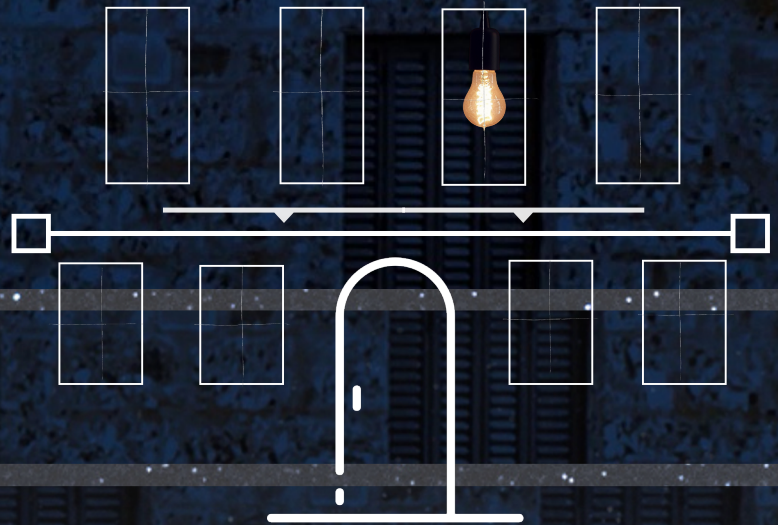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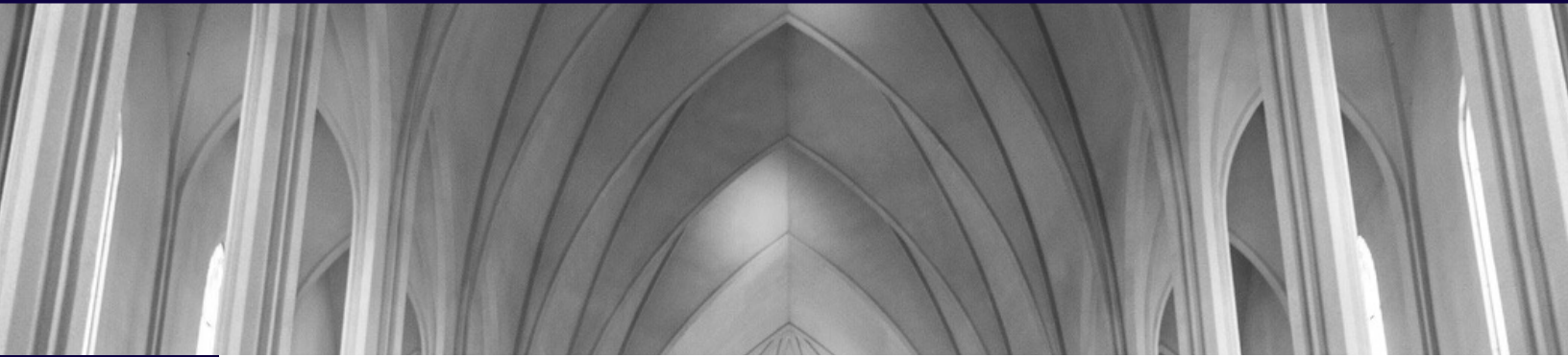
OUT OF CHAOS, **HOPE**



ANNUNCIATIONS: DISRUPTION & INVITATION



대림절 스터디 가이드



이 대림절 스테디 가이드에 대한 COVID-19 시대의 세상을 바꾸고 신앙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조지 플로이드, 토니 맥데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등의 죽음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외침이 생기고,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모두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전이기도 하다. 이 스테디 가이드는 영화의 렌즈를 통해 대림절과 성탄절의 신성한 이야기들을 탐구하도록 구상되었다: 특히 미국 장로교 재난지원국의 이야기 사역부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사용했다.

이 영화들은 재난 생존자와 그들의 치유와 포용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영화는 그 동안 회중과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 영화들은 생존자, 치유자, 활동가, 신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현실을 잘 담고 있으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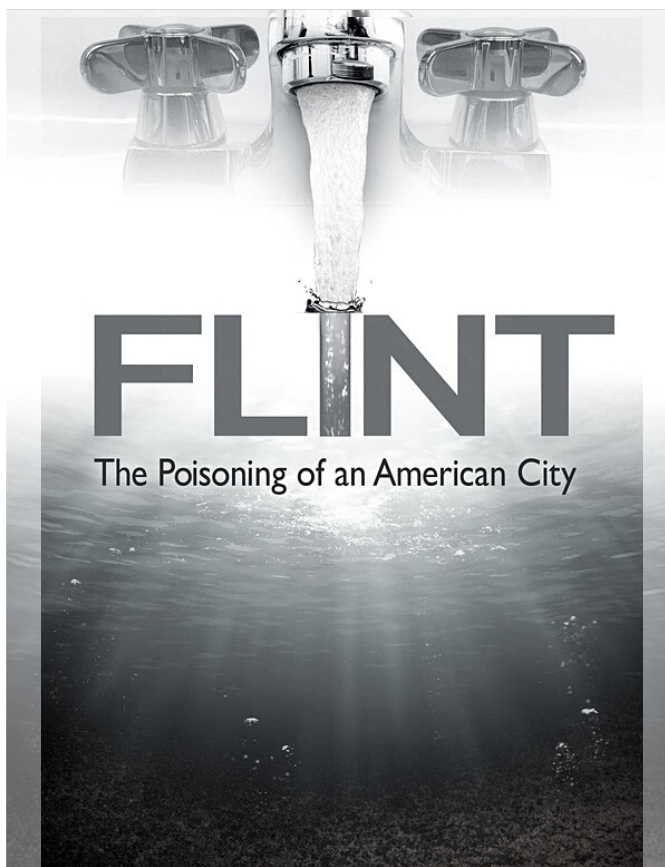
이 스테디 가이드는 성경의 성스러운 이야기와 다른 성스러운 이야기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상 클립들이 사용되었는데, 영상 클립은 성경적 이야기와 대림절 테마와 함께 어우러져 기독교적인 체험을 형성한다. 생존과 치유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다음 영화들은 인간의 광범위한 경험과 고통을 다룬다.

‘케풀리한 : 물이 빠져나간 순간’은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2004 년 쓰나미의 여파를 살펴본다.



‘방아쇠를 당기다 : 총기 폭력의 파급 효과’는 총기 폭력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호흡’은 시리아에서 온 재정착 난민 가족을 환대하는 체비 체이스 장로교회를 카메라로 따라간다. ‘상자에 갇히다’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구금을 파헤친다. 구금을 견디며 미국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 또 믿음에 감동되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 장(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을 통해 나누신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플린트 : 미국 도시가 중독되다’는 플린트 상수원 위기가 발생했던 과정을 쫓으며, 이 문제가 취약하며 권리를 박탈당한 시민의 삶에 미쳤던 영향을 전한다.



“파동을 일으키다 : 인종 차별과 우월주의를 타파를 향한 대화”는 어렵지만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힘을 모아 조직적인 인종 차별을 타파하고자 제작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COVID-19가 번지고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고 불확실한 혼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추가하지 않고는 이 스터디 가이드를 완성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이 지구적 혼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영상에는 영화 감독인 데이빗 반하트 (David Barnhart)가 플린트 지역 사회 지도자 중 한 명인 리사 혼과 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zoom을 이용해서 대림절의 틀 안에서 COVID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과 전 세계의 자연 재해 및 인재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미국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모든 것이 붕괴하는 현실에 익숙하다. 1 분, 1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트라우마를 견뎌낸 이후 삶은 다른 렌즈를 통해서 투영된다. BC (혼란이 있기 전)와 AC (혼란이 있을 후)가 나누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과 여파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BC에서 AC로, 특히 치유, 회복 및 지혜를 나타내는 AC 로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때때로 평생의 작업이 된다.

재난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화자가 여전히 무덤 속 나사로 같이 천으로 단단히 묶인 채 트라우마의 결박을 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눈물과 슬픔, 분노, 당혹감, 절망으로 엮여 있다. 또한 경이와 희망도 담겨 있다. 전해질 때마다 이야기는 바뀌어 나간다. 이야기는 전해질 수록 더 성장해간다.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더 깊은 시각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 하나 하나를 통해 수의는 조금씩 더 풀려 마침내 없어진다. 묶였던 나사로는 어둠의 계곡에서 자유롭게 나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재난을 겪은 신앙 공동체와 대화를 나누고 회복을 향한 신학적 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성경과 문화 안에 있는 대재앙을 담은 문헌의 역할을 언급한다. 문화에서 대재앙(apocalypse)은 상상이나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영향력을 가진 파괴로 묘사된다. 그러한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은 엄청난 작업이며, "정상으로 돌아가는"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에는 전혀 다른 과정과 목표가 있다. 우리는 트라우마와 재난의 영향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어의 *apocalypse*(계시록)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apo* 그리고 *kalypto* - 말 그대로 "uncover(드러냄)"이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혼란 속에서 역사하는 권세와 정사에 대해 무엇이 드러나는지 보라고 하심을 믿는다. 질병, 빈곤, 인종 차별, 화재, 홍수, 폭풍, 기타 재난의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강인함, 영감, 용기를 만들어내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깨어짐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피난처되신 하나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굳게 잡으소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부족한 인간성을 알고, 당신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오래 전처럼, 다시 한번 당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시, 이웃, 우리 자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쫓는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손아귀 속에서,
화재, 폭풍, 지진 또는 홍수의 여파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즐거운 가족 모임과 이웃 모임 속에서,
분노에 찬 거리 속에서, 오,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시옵소서!
특권이나 지위가 없는 이방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불신과 판단과 두려움 속에서 찢겨진 도시에서
정의를 위해 애쓰고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각각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정의와 사랑에 대한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이 상처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당신의 창조물에서 온전함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을 회복시켜주소서.
당신의 상처 입은 우리를 채워주소서.

평화의 왕의 도래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열방의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이 어둠의 시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기꺼이 감당하고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바랬던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밝아올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정의와 평화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라우마 인지 인도지침

이 스터디 가이드 속 일부 영화 클립은 시청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 이력이 있거나, 트라우마를 가진 고객/환자/동료/회중과의 대화를 통해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우, 시청은 특별히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고통스럽거나 자극적일 경우, 긴장하지 않고 시청하며 적절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룹 구성원을 준비시키는 방법 몇 가지를 적어본다.

1. 각 영화 클립의 내용과 내러티브에 대한 내적 반응을 인식하라. 빠른 심박수, 얇은 호흡, 구강 건조, 발한, 긴장된 근육과 같은 외상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근육을 조절하고 이완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을 연습해보라 - 예를 들어, 횡격막 호흡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점진적 근육 이완과 같은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 [Breathe2Relax](#), (스마트 폰의 App Store에서 무료) 및 [앤드류 웨일 박사의 4-7-8 호흡 운동](#)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3. 영화 클립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옆두에 두라. 당신은 누군가가 언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 운동을 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는 여러분의 반원들이 다음의 내용과 대화에 대해 덜 불안하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4. 영화를 보다가 참가자들이 갑자기 대화 자리를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들을 따라가 볼 사람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 그 사람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옆에 있어 주고, 돌보고, 호흡을 고르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역 기관이나 Disaster Distress Helpline (800-985-5990)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 학습을 시작할 때 기본 대화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토론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지 말라.
 - 방해하지 말고 정중하게 들으라.
 -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세션 I

스가랴: 신실함과 마비

중심기도/개회기도: 이 스터디 가이드를 공부하기 위해 모일 때, 여러분 그룹이 모임 시작을 위해 항상 하던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모임 시작 시에 늘 하던 일이 없다면, 이 기도로 시작하라.

[촛불을 켜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아 대림절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당신의 영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혼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혼란 속에서, 당신은 항상 우리를 더 깊은 신실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하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밝히고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경이와 방황 | 대화에 적응하기:

엘리자베스의 남편이자 레위인 사제인 스가랴는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는 옛 속담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오랫동안 절망해온 스가랴는 자녀가 없는 삶, 즉 자신의 제사장 계보가 끝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말년에 그는 신실한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다. 그는 실망과 갈망은 체념으로 귀결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삶과 그가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된 편안함으로도 달랠 수 없었던 슬픔이었다. 그때 수태고지가 있었다. "스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무슨 기도? 아들? 왜 지금인가?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은 스가랴가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질서있는 삶이 혼란에 빠진 순간에 그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기쁨이 아니라 당혹스러움이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다. 이 예상치 못한, 어쩌면 반갑지 않은 소식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스가랴의 질문은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나도 이상하게 만난 가운데, 스가랴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침묵을 받았다. 하나님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도 침묵하게 되었다. 아내가 임신한 기간 동안, 스가랴는 말을 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더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없었다. 그와 엘리자베스가 마주했던 신성한 응답을 이야기의 치유 구조 안으로 가져올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와 직무의 마비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제의 일상적인 일인 예식이나 의식의 익숙한 표현 속으로 도망갈 수도 없다면? 스가랴는 강제된 침묵의 훈련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우리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우리와 우리가 신뢰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 때까지 말이다. 삶의 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침내 자유롭게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세션 I

스가랴: 신실함과 마비

이나시오 수련법 소개: 본문에 뛰어 들기 전에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 수련"에서 처음 개발한 '매일 점검'의 수정된 버전을 사용해보라.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영적 훈련으로서 하루하루를 검토한다. "오늘 어느 순간에 대해 가장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날의 경험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가?"도 질문해본다. 이나시오 성인은 이러한 질문들을 포괄하기 위해 위안과 황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안(감사)과 황폐 (후회, 분노, 절망, 부끄러움 ...)의 시간에 대해 서로 나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감사 드린다. 다음으로 성경 읽기를 일종의 수정된 렉시오 디비나, 즉 "영적인 독서"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구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은 다음,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러 해보라.

우리가 이야기에 뿌리를 둔 대림절 스터디 가이드에서 이러한 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나시오 성인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은 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된 그리고 가장 명백한 이유는 계시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그를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으며, 그 이야기는 계시다."

본문을 읽으라: 누가복음 1:5-23

질문해보라: 본문을 읽은 후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인가?

스가랴에 대해 배우기

- 스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처럼 아론의 후손이었다.
- 아론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 24개로 사역을 나누어, 아론의 24 명의 아들이 하나씩 맡아, 성전에서 사역했다.
- 엘리자베스와 스가랴는 산간 지방에 살았지만, 스가랴가 성전을 감독하는 동안 예루살렘에 집을 구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도록 요청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영광이었다.
- 게다가, 스가랴는 그의 지파에 의해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 이 언약궤는 조상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다윗 왕을 전투로 이끌었던 것이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Craddock, Fred B., Interpretation, 누가복음 1: 5-56

세션 I

스가랴: 신실함과 마비

영화 클립 사용: 세션에 허용되는 시간과 클립 상영을 위해 필요한 기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클립을 사용할지, 어떤 클립을 사용할지, 각 클립을 상영하고 토론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분 리더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클립은 성경 본문과 스가랴의 마비와 신실함이라는 주제와의 대화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기억하라. 세션 I 비디오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cusa.org/PDA-annunciations에서

클립 1: 케폴리한: 물이 빠져나간 순간 (해당 시간 1:04-4:37)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2004년 쓰나미를 기억하는가? 그 뉴스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하는가?
- 교회로서 우리는 쓰나미 복구를 도우려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클립 2: 방아쇠를 당기다: 총기 폭력의 파급 효과 (해당 시간 4:38 -9:24)

본문은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가?

- 교회로서 우리는 2007 년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에 대응했는가?
- 그 이후로 우리는 총격 대량 살상 사건에 대처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클립 3: 플린트: 미국 도시가 중독되다 (해당 시간 9:25 -12:23)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우리 교회는 플린트 시에 있었던 상수도 문제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는가?
- 우리 교회가 환경이나 물과 관련된 정의와 연결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클립 4: 'COVID-19와 그 영향 미시간 주 플린트에 있는 퍼스트 장로교회의 상담가이자 지역 사회 사역 디렉터인 리사 혼과 함께' (해당 시간 12:25 -15:11)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것을 고려하라.

- COVID-19로 인해 불균형하게 더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 COVID-19와 다른 정의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세션 I

스가랴: 신실함과 마비

잠시 멈추고 다함께 호흡하기

토의를 위한 질문:

- 누가복음 1장 5 ~ 23 절에 나오는 스가랴와 공통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본문에 나오는 혼란이나 미덕으로서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덕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기능을 하는 침묵을 이 클립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본 적이 있는가?
-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종교적,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삶에서의 혼란이 어떤 종류의 마비로 이어진 적이 있는가?
- 미시간 플린트 시의 복구 노력 또는 기타 복구 노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란이나 불의가 만연할 때, 여러분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자연 재해, 폭력, 환경 정책 상 인종차별의 경우처럼 "혼란"이라는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희망을 표현하거나 희망을 가지자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가?
-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완전히 긍정적이었거나, 궁극적으로는 최선이었던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다음 주 토론을 위한 공지 : 이 부분에 공지 사항이나 지켜야 할 항목을 자유롭게 넣으라.

마치는 기도

세션 II

엘리자베스: 우리의 정체성 찾기

중심기도/개회기도 : 스터디 가이드를 공부하기 위해 모일 때, 여러분 그룹이 모임 시작을 위해 항상 하던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

[촛불을 켜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듣고 더욱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의 영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한 것이든지 목격을 한 것이든지, 혼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고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경이와 방황 | 대화에 적응하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의 정체성과 인격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 역할로 정의된다. 즉 아내, 어머니, 혹은 예수님의 "배경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전개되는 매개체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조차도 비유이다. 그것은 사라나 한나 같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 의로운 여성,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욕"을 없애주신 착한 아내. 쉽게 현대의 많은 여성들과의 연관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매우 실제적인 면에서 이 세 여성은 모두 현대 여성의 원형이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여성; 많은 역할을 다 해내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 아내 및/또는 어머니 이상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여성; 선택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여성. 그리고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 외에도, "잉태하지 못하는"이라는 꼬리표는 비난, 죄책감 및 판단을 불러 일으킨다. 오늘날에도 이 단어가 그런 것들을 촉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 과를 공부할 때, 그룹 안의 여성들에게 좀더 주의를 기울이라.

노년에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정체성을 떼어버리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신비이자 위험이다. 그녀가 잉태를 깨닫고 몇 달 동안 은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임신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그녀는 행복한 결론, 건강한 출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녀가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스가랴는 그들이 겪고 있는 여정을 어떤 위안의 말도 더할 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고립과 소외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싸고 축하했다. 공동체가 보기에 엘리자베스는 이제 새롭게 더 나은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 주장했을 때,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신 그녀의 침묵하는 남편에게로 향했다. 엘리자베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었으며,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임신한 마리아에게 연대하여 손을 내밀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로 있어 주었다.

세션 II

엘리자베스 : 우리의 정체성 찾기

영적 훈련: 위안과 황폐

질문해 보라: "오늘 어느 순간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오늘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가?"

렉시오 – 본문 읽기: 누가복음 1:24-25; 57-63

질문해 보라: 본문을 읽은 후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가?

엘리자베스에 대해 배우기

- 엘리자베스도 남편 스가랴처럼 아론의 후손이었다.
-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할 수 없었던 의로운 여성들 계보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 아들을 갈망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상속자를 가지기를 바랬다.
- 후일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들을 간구한 엘가나의 아내 한나처럼, 엘리자베스는 스스로가 그렇게 축복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라는 단 하나의 문제로 축소되며, "잉태하지 못하는"이라는 꼬리표는 비난, 죄책감 및 판단을 불러 일으킨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Craddock, Fred B., *Interpretation*, Luke 1:5-56

세션 II

엘리자베스 : 우리의 정체성 찾기

영화 클립 사용: 이번 주의 모든 영상은 '자유로운 호흡 (To Breathe Free)'에서 발췌했다. 홈스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요르단의 난민 수용소로 도망친 한 시리아 가족이 궁극적으로 워싱턴 DC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5년의 여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클립을 모두 보여준 후 묵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영상들은 성경 본문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이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의 주제를 탐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세션 2 비디오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cusa.org/PDA-annunciations

클립 1: 베트남 전쟁 중 아동 난민으로 미국에 온 로언은 세비 체이스 교회가 정착을 돕고 있는 시리아 가족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으로 운전합니다. (2 분)

클립 2: 아파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시리아에서 온 가족은 세비 체이스 장로교회의 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2 분)

클립 3: 로언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녀가 받은 정체성에 대해서 숙고한다. (2 분)

- 어렸을 때의 로언의 개인적인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시리아 난민 위기 대처 방식에 도움이 되었는가?
- 마리아트와 아마르는 누구이며, 시리아 분쟁은 가족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로언은 그녀의 정체성의 형성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생활 경험, 물려받은 배경, 지식)?

클립 4: 'COVID-19와 그 영향 미시간 주 플린트에 있는 퍼스트 장로교회의 상담가이자 지역 사역 디렉터인 리사 혼과 함께'(해당 시간 6:23 -8:15)

만일 이 클립을 상영하기로 했다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을 질문해 볼 것을 고려하라;

- 어떻게 비극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
- 비극과 혼란은 어떻게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가?
- 집단적 혼란에서 본 "파급 효과"의 일부를 말할 수 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잠시 멈추고 다함께 호흡하기

세션 II

엘리자베스 : 우리의 정체성 찾기

토의 질문

-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2011 년 부터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응한 방법이 있는가?
- 난민을 환영하는 것과 이번 주 성경 본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 당신의 정체성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체성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집단의(가족 구성원, 지역 사회 구성원, 교회) 이해와 관련이 있는가?
- 당신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이번 주 본문에서 혼란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 신앙과 전통의 역할은 파괴적/변혁적일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강화하는 것일 때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함께 분별력을 발휘하여, 혼란 시 고려해야 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가?
- 정체성에 던져진 닳은 혼란을 헤쳐나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영화의 주인공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임을 보았는가?
- 우리의 삶, 가족, 지역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잉태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COVID-19로 인한 강제 격리에서 엘리자베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우리의 다양한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이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우리를 위치시키는 방식-은 혼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좋은 문제꺼리"를 만들어내는가? 또한 어떻게 유대인 친구들이 "틱쿤 올람"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세상 치유 안에서 타인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초대하는가?

다음 주 토론을 위한 공지: 이 부분에 공지 사항이나 지켜야 할 항목을 자유롭게 넣으라.

마치는 기도

세션 III

요셉 : 그에게서 용기를 얻다

중심기도/개회기도 : 스터디 가이드를 공부하기 위해 모일 때, 여러분 그룹이 모임 시작을 위해 항상 하던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기도로 시작하라.

[촛불을 켜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한 것이든지 목격을 한 것이든지, 혼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고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경이와 방황 | 대화에 적응하기:

우리는 요셉이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처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로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거나 반발을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은 순종과 규칙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규칙 위반자는 정의롭지 못하다. 요셉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뭇의 전통과 규범에 의해 형성된,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 남성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신한 어린 소녀와 약혼한 상태였다. 그 임신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혔다. 여러 정황으로 우리는 그가 다정다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적절한 일(이혼)을 하기 원하지만, 온화한 방식(개인적으로 마리아를 공공의 불명예에서 구하기)을 택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에 있어 도전을 겪고 관점을 바꿔야 했던 우리 중 많은 이와 같이, 요셉은 개인적으로 크나 큰 혼란을 겪으면서 매우 불안했을 것이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자신과 그의 명성은 물론 그가 목숨을 맹세한 여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 그는 스스로 자라온 모습과 공동체의 전통에 머물기로 하고 그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의 언어 — "그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는 이 선한 사람이 견뎌낸 투쟁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힘든 결정을 내리느라 지쳐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의 결정은 특별히 용감한 것이 아니다. 그가 가려고 의도했던 그 길은,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삶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옳지만, 용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꿈에서 두 번째 혼란을 마주한다. 과거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자 요셉을 위험에 빠트리는 도전이었다: 조롱받고,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재정적 정서적 의무에 얽매어야 하는 도전. 게다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하는 아내는 당시 상식으로는 남편에게 불충실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여인이었다.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요셉은 전통을 깨뜨려야만 했다. 꿈과 약속에 충실하려면, 단순히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보다 신실하고, 보다 진실되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

세션 III

요셉 : 그에게서 용기를 얻다

영적 훈련: 위안과 황폐

질문: "오늘 어느 순간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오늘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가?"

렉시오 – 본문 읽기: 마태복음 1:18-25

질문해보라: 본문을 읽은 후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가?

요셉에 대해 배우기

- 구약의 율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규칙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유명하다.
- 여기서 문제가 된 규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약 1 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다리는 일 년 동안, 그들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이 규칙이 위반되면, 남자는 여자와의 결혼을 거부할 수 있고, 여자는 미래의 남편과 양가 모두에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돌에 맞을 수 있었다.
- 요셉은 "조용히 그녀를 떠나 보낼 것"을 결심함으로써 동정심, 은혜, 용서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 마태복음의 경우, 요셉은 종종 학자들에 의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러 오신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해석된다.
- 이 원형은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천사)가 나타나신 것과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을 통해 입증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Hare, Douglas R.A., *Interpretation*, Matthew 1:18-25

세션 III

요셉 : 그에게서 용기를 얻다

영화 클립 사용: 세션에 허용된 시간과 클립 상영을 위해 필요한 기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클립을 사용할지, 어떤 클립을 사용할지, 각 클립을 상영하고 토론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분 리더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클립은 성경 본문과 요셉의 딜레마와 그의 용기라는 주제와의 대화를 위해 사용됨을 기억하라. 세션 3의 클립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cusa.org/PDA-annunciations.

클립 1: '케폴리한: 물이 빠져나간 순간' (해당 시간 1:04-3:03)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야디의 이야기 속 혼란은 어떻게 그를 용기있게 만들었는가?
- 이번 주 성경 본문과 이 영상의 주제가 일치하는가?

클립 2: '방아쇠를 당기다: 총기 폭력의 파급 효과' (해당 시간 3:03 - 4:54)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나르다인의 상한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용감한 행동으로 이끄는가?
- 상실, 황폐, 슬픔을 경험했을 때 "힘을 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르다인의 성찰과 이번 주 성경 본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만들 수 있는가?

클립 3: '상자에 갇힘' (해당 시간 4:55 -7:22)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멜라니의 용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용기를 이끌어냈는가?
- 우리 교회는 미국 이민 시스템 내의 불의와 학대에 대해 의미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클립 4: 'COVID-19와 그 영향 미시간 주 플린트에 있는 퍼스트 장로교회의 상담가이자 지역 사회 사역 디렉터인 리사 혼과 함께'(해당 시간 7:23 -8:56)

만일 이 클립을 상영하기로 했다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을 질문해 볼 것을 고려하라;

- "용기를 얻음"이라는 주제가 이 영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플린트와 같은 도시에서 용기는 어떻게 구체화되고 드러났는가?

세션 *III*

요셉 : 그에게서 용기를 얻다

잠시 멈추고 다함께 호흡하기

토의 질문

- 당신은 용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용기가 대담함과 다른가?
- 한 사람이나 집단이 전통, 법과 질서, 가족이나 공동체 또는 교회의 일반적 관습에 반하여 행동해야 했던 용기의 구체적인 예가 있는가?
- 당신은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인가와 옳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말할 것인가 사이에서 긴장을 느낀 적이 있는가?
- 혼란 때문에 용기를 내어야 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 여러분 회중의 삶에서, 혼란 때문에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용기를 내어야 했던 때가 있는가?
- 주인공의 삶과 영상 클립과 성경 본문의 등장 인물들에서 있어서, 용기와 희망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음 주 토론을 위한 공지: 이 부분에 공지 사항이나 지켜야 할 항목을 자유롭게 넣으라.

마치는 기도

세션 IV

마리아의 초대: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중심기도/개회기도 : 스터디 가이드를 공부하기 위해 모일 때, 여러분 그룹이 모임 시작을 위해 항상 하던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기도로 시작하라.

[촛불을 켜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의 영으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한 것이든지 목격을 한 것이든지, 혼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고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경이와 방황 | 대화에 적응하기:

대림절마다 많은 소셜 미디어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찬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글들은 팝 캐롤 "Mary Did You Know?"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물론 알고 있었지, 이 바보야, 도대체 성모 마리아 송가를 읽어는 보았니? 아니면 그냥 댓글만 읽었니?"로 귀결되는 독창적인 밈을 만든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가?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마리아가 무언가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해방의 힘은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약속의 자녀를 낳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초대를 받았고 스스로 선택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소서." 이 선언은 전 세계와 역사를 바꾸는 혼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혼란이 시작되기 전 "천사는 떠나"갔다. 이 잉태, 이 시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리아는 굴욕, 배제, 거절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수태고지를 전한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번 대림절 시기에도 우리는 아직 질병과 인종 차별의 유행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많은 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용기있는 선택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다. '방아쇠를 당기다'의 클립 속에서 우리는 브리셀의 어머니 나다인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브리오나 테일러의 어머니인 타미카 팔머의 말을 듣는다. 마리아처럼 그들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듯 아팠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상실과 불의로 인해, 이 여성들과 많은 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녀가 노래하는 정의의 노래는 신앙 전통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 한나의 말을 가사로 삼은 것이었다.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녀는 "낮은 자"에게 힘을 실어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노래했다. 그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일의 일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션 IV

마리아의 초대: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영적 훈련: 위안과 황폐

질문: "오늘 어느 순간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오늘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가?"

렉시오 – 본문 읽기: 누가복음 1:26-38

질문해보라: 본문을 읽은 후 즉각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가?

마리아에 대해 배우기

- 학자들은 누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 그녀가 14 세에서 16 세 사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시 상황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가임 연령'에 다다르고, 가족이 지참금을 제공할 수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과 약혼을 했기 때문이다.
- 종종 남성은 10 세에서 20 세 사이였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면 되었다.
- 그녀 이전의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성서에 나오는 마리아의 성격은 실제 여성의 스케치가 아니라 기대, 이상 및 역사에 의해 형성된 캐리커처 또는 유형에 가깝다.
- 그녀는 가난하지만 충실한 딸이자 겸손하고 순종적인 종인, 이사야의 소녀/처녀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지만 행동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 D' Angelo, MR, Women in Luke-Acts : A Redactional View

세션 IV

마리아의 초대: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영화 클립 사용: 세션에 허용된 시간과 클립 상영을 위해 필요한 기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클립을 사용할지, 어떤 클립을 사용할지, 각 클립을 상영하고 토론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분 리더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클립의 사용은 '마리아의 초대' 세션의 주제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한 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세션 3의 클립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cusa.org/PDA-annunciations.

클립 3: '플린트: 미국 도시가 중독되다'(해당 시간)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플린트 주민들 사이에서 삶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권위가 사라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알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것과 플린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받은 일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클립 2: '파동을 일으키다'(분 6:01 - 8:46)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데니스는 흑인 여성과 비 이분법 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경험하는 무효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조직적인 흑인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회중에 대한 초대로 이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그런가요, 또는 왜 아닌가요?

클립 3: '방아쇠를 당기다: 총기 폭력의 파급 효과'(해당 시간 8:47 - 9:56)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 영상이나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 총기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특별한 믿음이나 가치가 있는가?
- 이 영상 속의 어머니와 본문 속의 마리아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클립 4: 'COVID-19와 그 영향 미시간 주 플린트에 있는 퍼스트 장로교회의 상담가이자 지역 사회 사역 디렉터인 리사 혼과 함께'(해당 시간 9:57 - 13:30)

이 영상을 보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것을 고려하라.

-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기"라는 주제가 이 영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공동체나 플린트와 같은 도시의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장벽은 무엇이었는가?

세션 IV

마리아의 초대: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

잠시 멈추고 다함께 호흡하기

토의 질문

1.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에 당황했음을 보여준다. 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하나님, 성경,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상식에 반하는 것을 들었다고 믿었을 때를 설명할 수 있는가?
3. 일반적으로 당혹감이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거나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는가?
4.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고, 당신은 정의의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선택한 때를 설명할 수 있는가?
5.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하는 방법과 장소가 있는가?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

- 올해 개인으로서의 당신/그룹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가?
- 지속적인 자연 재해와 인재, 인종 차별의 폭력, 전세계적 팬데믹과 환경 파괴에 직면해, 우리의 초청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소그룹으로서는? 더 큰 공동체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치는 기도

대림절 가이드 제작자:

Dr. Laurie Ann Kraus, PDA 디렉터 // *David Barnhart*, 스토리 사역/영화 제작자

Cameron Stevens, 편집자 및 홍보 활동 // *Myles Markham*, 편집자 및 디자이너

장로교 재난 지원 전국 대응팀 : *Dr. Bruce Wismer*,

Katherine "Cully" Culpepper 목사, *Bill Neely* 목사